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시편 15:1-5)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은 단순히 지옥에서의 고통을 피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나이까”(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때문에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칭의의 문제라기보다 경건의 문제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4). 율법의 요구는 십계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대강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며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경건한 삶의 표준은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으나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분으로 자신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바른 행실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무엇보다 정직하고, 믿고 행하는 것이 같은 사람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것에는 단순한 말을 넘어서 행동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행동 또한 진실합니다. 남이 하는 일이 자신의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남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실수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4.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의 가치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4절).

진실한 사람의 기준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망령된 자는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존귀히 여기는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해야 합니다.

1.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의 성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2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거나 잘 다듬어진 성품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의 삶은 평일의 삶이 주일의 삶과 같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분으로 자신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바른 행실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무엇보다 정직하고, 믿고 행하는 것이 같은 사람입니다.

2.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의 언어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2절).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마음에 품은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 곧 심언이 일치하고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신뢰할만한 사람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진실하지 못한 이들의 말로 인해 많은 이들이 믿음에 실족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확실치 않은 말을 하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언어 습관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방하지 전에 먼저 자신의 혀를 깨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3.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의 영위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3절).

5.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의 성실성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4절).

한 번 약속한 것은 불이익이 올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자를 인정하십니다.

6.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의 돌질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5절).

변리의 고하를 막론하고 변리를 목적으로 돈놀이 하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 역시 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오용하는 자, 남용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5절).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행하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여 행악치 아니하고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며 해가 되어도 약속을 이행하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본문을 끝을 맺습니다.

변화무쌍하고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자신을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명자 대회 특별 새벽기도회 14일부터 시작된다

대한민국 정체성회복과 북한 신앙자유를 위해

10월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명자 대회기간 중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는 11월14일부터 시작 된다.

지금까지도 온 교회 성도들이 열렬히 기도(오전10, 오후10시기도) 및 릴레이기도(24시간 연속기도)를 통하여 5대 기도제목의 간구를 끊임없이 드렸지만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는 대한민국의 정체

성 회복과 북한 신앙자유를 촉구를 주제로 걸고서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이번 2주간의 기도 기간 중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아뢰기 위하여 방법과 시간은 개인이 자유롭게 정하되 "하루금식"이나 또는 "한 끼 금식"기도를 드린다.

UN 인권결의안 찬성촉구 기도회

11월 10일 목요일 오후 6시 광화문에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UN 인권결의안 찬성촉구 기도회가 오는 11월 10일 오후6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5호선 광화문역 6번출구, 광화문 사거리 구 국제극장 앞에서 개최된다.

은 세계가 북한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결의안을 상정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촉구하고 있는 즈음에 우리 정부는 3년 연속 인권 결의안 상정 시 기권하여 제1 당사자인 한국정부가 세계여론과 국제적인 양심들에 지탄을 자초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이 분연히 UN 인권결의안 찬성촉

구 기도회로 기독교의 양심과 북한 주민의 인권에 성도들의 특별한 기도와 결집된 뜻을 표명기로 하였다.

특별히 이날 기도회의 설교말씀을 서울교회 이종운 위임목사께서 맡으셔서 한국정부와 교계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을 사랑하는 양심들에게 감명 깊은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게 된다.

북한주민의 신앙자유와 인권향상을 위한 특별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의 동참과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날 기도회에 앞장서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06년도 농어촌 100교회 운동 후원자 모집

농어촌 교회 목회자의 최저 생활비 감당, 11월30일까지 접수

우리나라 농어촌 미자립 교회는 고령화 사회의 급격한 진행에 따라 미자립 재정의 고착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교회는 민족복음화의 일환으로 한국교회 부흥의 터전이었던 농어촌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농어촌100교회 운동을 계속 전개해 오고 있다.

작년부터는 총회의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균화 정책에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교회내의 개인, 가

정, 기관, 단체는 약정된 구좌를 후원함으로써 미자립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동참을 원하는 성도는 일정 구좌(1/2구좌도 가능)신청서를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개인이나 단체가 후원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이 있을 시 지정 신청하여 교회를 통해 후원을 할 수도 있다.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선교위원회에서는 온 교우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교회 헌당 감사 14대 행사-

경로 잔치 갖는다

11월 10일(목) 10시30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우리교회는 교회 설립 14주년과 하나님께 헌당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이때까지 눈물과 기도로 충성하신 어르신들과 교회 이웃 어르신들을 모시고 위로하는 경로잔치를 연다.

교회 내외의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함께 감사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경로잔치는 11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건축헌금자 명단 동판 재 제작

서울교회 새 예배당 건축에 헌금으로 동참한 성도들의 신앙과 정성을 길이 남기고자 5층 복도에 게시된 명단을 재 작성하여 동판에 새겨 존안하게 된다.

오는 12월까지 건축헌금을 하신 성도들과 온 식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며 헌금액수와 명부는 문서보관실에 영구 보존된다.

10월 새가족 환영회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지난 10월 중 등록된 새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이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있다.

10월 중 등록된 새가족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강명훈 강병찬 강창균 강총구 고주연 곽진호
- 김기순 김동우 김성민 김소희 김수정 김영기
- 김영기 김영희 김옥임 김옥준 김은숙 김주현
- 김중필 김중철 김혜수 김혜지 남정자 남효문
- 노윤선 민지영 박금순 박병준 박성흠 박세진
- 박안나 박예진 박재희 박정란 박정수 박종호
- 박주용 박준우 박현일 박현조 배영수 배종혁
- 백승주 백승주 서광원 서덕용 서정민 석정녀
- 손경화 손용문 송송이 신명희 신은서 유미숙
- 유재영 유진숙 유창수 육수연 윤경호 윤상훈
- 윤성준 윤인종 윤형준 이 준 이경희 이경빈
- 이경옥 이동훈 이미승 이범주 이선진 이성표
- 이순애 이승희 이예원 이유성 이은실 이인순
- 이재욱 이정민 이주은 이준표 이철주 이현제
- 임성윤 전진영 정다영 정문길 정보영 정우진
- 정종호 정하은 조경희 조남해 조동호 조영희
- 조원경 조원경 조찬제 조혜영 최 희 함수경
- 허유미 허준실 황영옥 황정숙 황차동

(이상 107명)

태신자 명단

사명자 대회 기간에 태신자를 위한 기도와 전도가 계속된다. 지난 주에 이어 이들이 구원을 받도록 함께 기도를 드리자.

- 김진아 최지환 최선희 최철용 이규석 고임수
- 이진순 신병옥 고영미 신의진 김인순 정경희
- 김이돌 조근형 신용달 허병욱 신용현 신영재
- 곽영준 최영숙 박 윤 윤진숙 윤길례 장영미
- 박일성 김정호 김성애 정애란 최정인 최승현
- 홍금순 정예빈 정형진 이경순 김기중 박미영
- 권이봉 윤선옥 김연주 김혜주 김유정 김재현
- 최준호 함현준 정창규 이애순 고경숙 김영희
- 김형빈 김윤호 이상근 김정빈 김경임 이슬희
- 이승현 이 휘 김호연 이재은 신숙희 이효진
- 김규송 김길석 김현석 장동숙 윤태영 박문옥
- 박연숙 송정현 홍성진 최홍순 김기남 이미선
- 김용학 안성배 김병권 박정선 윤동섭 김태암
- 박민구 박선영 강태우 김현지 변재욱 서영진
- 김경애 안성은 김경화 이무룡 박용목 채영이
- 박해원 박광원 박성원 이영화 오봉인 정계완
- 이은용 박예진 박영민 서정현 (다음주 계속)

봉사자 모집

서울교회 도서실이 개관을 앞두고 "도서 분류 작업"이 가능한 사서경험이 있는 봉사자를 모집한다. 사무국에 신청바란다.

연합찬양대 찬양 Festival

연합찬양대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503호실

초청찬양대

임마누엘찬양대 연습

매주 토요일 5시 501호실

장로가정 탐방 - 박정선 장로 김남순 권사 가정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강원도 원주, 간현 마을에서 태어난 박정선 장로님은 자신의 고향을 깡촌이라고 표현한다. 요즘엔 3,4세만 되어도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박정선 장로님은 중학교를 가서야 피아노를 처음 보았다고 한다. 그런 그가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가가 된 것은 유난히 소리를 좋아하셨던 부친의 음악적 기질을 받은 때문이라고 한다.

1972년,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던 김남순 권사와 결혼하여 뒤늦게 딸 선영이가 태어났고, 지금 선영이는 자신의 뒤를 이어 음악도의 길을 걷고 있다. 일찍 유학을 떠나 가족이 떨어져 있지만 이들은 아침마다 전화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3년 전 그렇게 사랑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살아계신 것만 같다는 박정선 장로님, 남달리 교육열이 강하시고 강인하셨던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고향집 사랑방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간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셨다. 기력이 다하시는 날까지 새벽기도를 거르지 않으셨고, 아버지는 새벽종을 치시는 종 집사로 하나님을 섬기셨다. 동네에서는 예수를 믿어 자녀들이 모두 잘 되었다고 부러워한다고 한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잠:27). 박 장로님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기에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찬양대 지휘를 한 박정선 장로님은 교회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한다.

박정선 장로님은 현재 단국대학교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찬양대 양성반 강사와 교육 5국장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

오는 25일 금요일 저녁 우리교회에서는 헌당 감사를 위한 찬양 festival이 열리고 그 날 박 장로님의 지휘로 연합찬양대가 칸타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종윤 목사님이 시를 쓰신 이 칸타타는 지난여름 박 장로님이 기도하며 작곡한 것이다.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라”는 어머니의 유언, 박정선 장로님은 오늘도 어머니께서 남기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리라 다짐한다.

허숙(편집부)

사망자대회50일연속기도
-가정을 위하여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김광신 장로(12교구)

하나님 아버지
내 입의 말은 천국방언이 아니라
촌스럽고 무식하기로 소문난
경상도 사투리의 억양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서 힘들었고
그래서 말을 만들어 내지도
못한 채 입안에 말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답답했고 숨막혀서
병어리 냉기스름이었는데
어느날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내려오셔서 우리 가문의 말을
아이들을 수 있게 바꾸셨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나라 방언으로 말씀을 듣게 된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은 경상도 말 대신에
천국 말을 쓰게 되었고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기적적이고 신비하고 은혜이고
축복이며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 은혜가 넓게 멀리 온 누리까지 퍼지는
사망자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방언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가문의 영광이
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먼저 나오고 부모가 끌려 나오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온가족이
그 대열에 합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이 은혜가 임하므로
동네가 그렇게 되고
마침내 온 나라가 예수로 물드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에게 전도

애향원을 찾아서

서순희 집사(14교구, 사랑부 교사)

이른 아침의 찬 공기를 가르며 교회 앞 출발 전 대기 버스를 향해 하얀 웃음들이 한 들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설레임과 기대 그리고 보고픈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적하는 애향원에 빨리 달려가고파 서울교회 사랑부 선생님들이 안달입니다.

애향원은 우리 교회 초창기 사랑부에 있던 학생들이 가운데 성년이 되어 더 이상 재활원에 있을 수 없게 된 학생들이 자립하기 위해 간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이곳 애향원에는 여율이, 나경이, 수진이, 창규, 경찰이, 유신이가 있습니다. 상기된 얼굴과 톤 높은 목소리, 환한 표정들이 한없이 좋아 보입니다.

출발 전 사랑부 이용식 목사님의 애향원 방문목적과 안전사고 없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 부장 부감이 하 30여명의 선생님들께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호화로운 도심을 떠나 어느덧 가을 햇볕 속에 반짝이는 계곡을 지나 하늘과 가까운 높은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름 모를 나무들, 절정에 달한 단풍은 어찌나 곱던지...

먼길을 굽이굽이 돌던 버스는 아름다운 대자연 깊은 산속에 마치 그림처럼 예쁜 집 "애향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우리를 기다리던 그곳의 목사님과 장로님 이하 장애우들이 우리 모두를 반갑게 맞이해주셨습니다.

서울교회 사랑부 교사들과 애향원 장애우들과의 만남은 반가움의 도를 넘어 서로 보고뵈던 마음을 감추지 못해 안아주고 끌어주며 사랑하는 얼굴들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일정에 따라 이용식 목사님 인도 하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진심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부를 떠나 애향원을 간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우려하던 우리는 밝은 모습의 아이들을 보면서 그저 기쁘기만 했습니다. 예배 후 우리가 가져간 마음과 사랑, 그리고 성의를 그곳 목사님께 전달하면서 서로가 주님 안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애향원 소개, 기념촬영, 준비해간 맛있는 식사, 식사 후 우리 서울교회 사랑부 청년들의 솔선수범하는 모습과 주방 뒷정리 솜씨는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또 잠깐의 친교시간을 가진 후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하는 우리들을 보고 헤어지기 싫다며 눈물 흘리는 아이들을 차마 떼어놓고 가기가 참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눈시울 적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그래" 이것이 주님사랑이구나 느꼈습니다.

이 아름다운 광경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 숙연해지면서 두 손 모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충만함이 있고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있는 시간을 서울교회 사랑부에 주셨습니다.



2005 사명자 24시간 연속기도표 (11.6~12)

기도지원자는 1층 현황판에 이름을 적으십시오.

일시	0-1	1-2	2-3	3-4	4-5	5-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11/6	주일	주일예배																									
7	월	이명순 이양철 김미향 인주찬 김수호	이관규 인주찬 김수호	이경구 권장철	박현욱 권장철 이경구	이경구 권장철 방요철 박현욱 남상경	홍순복 소신자 유수순	이안준 신선주 김찬진 김연정 정영옥	전인완 원복순 김명정 정영옥 배은희	손정실 장영희 박영옥 이재향 김진희	전용순	나기태	방승희	윤정식	신현이	김연정 신정순	황인숙 신정순 김영숙	이은희 문승순 유태서	이은희 문승순	심상필 김영희	유승순 서경애 소신자	이현주 윤성남	이현주 윤성남				
8	화	이명순 박민혜 윤찬오 양미정 유슬기 이양철 김미향	조정식	홍일성 오치열 최자순	홍일성 오치열 박현욱 이연주	홍일성 오치열 김민준 이연주 박현욱	조철기 최양혜 이금순 남주주 최금봉	최정옥 박성희 이금순 장민자	김찬진 손정실	엄금순 전광환 이정임	엄금순 전광환 이정임	김인진 최성희	박은주 김의진 김보순 최성희	박정임 유슬상 김보순	유슬상 정영숙 조일영	정영숙 조일영	신선주 박영자 김의진	박영자 김의진	박영자 김의진	함은희	송금순 김은주 서경애	오기현 이순희	오기현 이순희				
9	수	이명순 신영범 이양철 김미향 이원영	홍성주 전정숙	한충현 이재원 전정숙	이재원 한충현 박현욱 전정숙	이재원 한충현 박현욱 전정숙	김정순 김인희 전정숙 김신애 박찬주 김미애	최의욱 유예린 김정재 진교숙	함은희 이은희 김지영 노정옥 오정숙 김경애	함은희	수요 1부	박정순 이영선 장애신 유복려 김자순	김인숙 김동자 방승희 유상태 송수옥	박정임 송문근	김찬진 이정임 채희희 임윤자	유화자 박상용 김미자 박희서	장영희 정호진 자성호 김영호 유묘봉	인명순 최소희 장명주 김재길 김영호	수요 2부	서훈식 이상애 한옥순	김은선 윤은식	황연진 윤용미 지영도 정미연 송재현 서순혜	황연진 윤용미 지영도 정미연				
10	목	이명순 이양철 임준규 김미향	이병생 신영범	오우식 권장철 한광미	오우식 권장철 박현욱	오우식 권장철 박현욱	배옥선 이신애	오복록	김찬진 송민정 안미경 김미영	조상희 조기선	황재연	강아름 안상희 윤종덕 이부자	김인숙 이영희 김보순	박정임 최원자 공재식	최원자 박정순 이혜선	최원자 이영희	신선주 김상옥	김매수 송희수 전창식 송미자	김경희 예은희 송금자 김정재	김경희 예은희 송금자 김정재	김애수 송계숙 전창식 송미자	이정희 전정숙 김영호 이미연	윤명구 은기장				
11	금	이명순 이양철 김광신 김미향	최영진 이용성 김광식 김지용 박용주	이승우 이재원 김광행 안광연 장우상	이승우 김영민 김광행 안광연 박현욱 이연주 김미향	이승우 김영민 김광행 안광연 박현욱	서경애 이규숙 방남희 김경애 양미향	전영자 변은영 홍영희 유수순 김미향	방한영 노명옥 이덕희 고복자	장화영 이명희 김영숙 김영희	박이선 송화숙 이양숙 양우자	함정희 김영숙 이숙 임명숙	이은희	박정임 권희순 김명자 김혜자	이정연	신동기	이인선	김예환 서상근 김숙자	정원조	주경자	금요기도	송미령 김지인 김수원					
12	토	이명순 오정수	이갑진	장석우 이양철 김영오 서대석	김정숙 이연주 유우목 이양철 박현욱	이연주 김정숙 유우목 이연주 박현욱	박정임 김천애	여연숙 김수오	정원조 정순숙 최난수	김찬진 방은진 정원근 김경희	오규자 남옥진	채경희 이영희	채경희 이영희	이순배 심화숙	고인진	장영일 유슬상	대학 청년부 기도	대학 청년부 기도	대학 청년부 기도	대학 청년부 기도	대학 청년부 기도	대학 청년부 기도	대학 청년부 기도	대학 청년부 기도	대학 청년부 기도	대학 청년부 기도	대학 청년부 기도

28학기 목회자세미나를 마치며...

가을에 생각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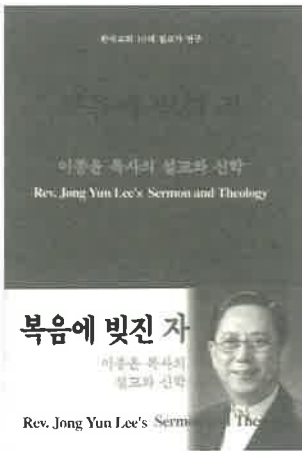
이계홍 집사(14교구)

가을이 되면 늘 생각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2002년에 서울교회가 농촌전도대를 목양교회(충남 예산)로 파송할 때 인태군 목사님을 처음 뵈었고, 이웃들이 항상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시라고 자랑하시던 그 말을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그 먼거리에서 몇 해 동안 철따라 농사지으시는 농작물(감자, 무우, 미나리, 배추, 양파)을 공급해 주시는 목사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에도 변함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수년 동안 부지런히 배우러 오시는 목사님이 항상 존경스럽습니다. 항상 서울교회를 사랑해주시고 들어오고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도 본이 되는 목사님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목양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 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양의 뜰이 기쁨지고 풍성하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목양교회와 목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복음에 빛진 자 출간

-이종운 목사의 설교와 신학-

한국교회 사학 연구원(원장 민경배)은 지난 해 10월 한국 교회 10대 설교가 연구 시리즈로 이종운 목사의 설교와 신학을 연구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묶어 복음에 빛진 자라는 제하의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 동정**
- 이종운 목사는 8일(화) 제37회 강남노회 정기회에 부목사들과 장로(김광신 오정수 노문환 정병무 이영기 왕경래 하영수 민순구 윤찬오 박두영)와 함께 참여한다. 10일(목) 장로교 신학회 월례 발표회를 소집하고, 군선교 연합회 이사회에 참여하고 UN북한인권 결의안 찬성 촉구 기도회에서 설교한다. 11일(금) 총회 주기도·사도신경 위원회를 소집한다.
 - 이은준 선교사 목사 인수: 8일(화) 서울강남노회 가을노회 시, 장소: 소망교회
 - 득녀: 배기훈 남미희 성도 가정 (배재송 임분도 권사 손녀)
 - 개업: 이준호 이은희 집사(2교구) 카사벨라 주얼리 (연세대 동문회관 B 101호)
 - 주간 식당 봉사: 엘리야선교회(11월6일) 모세선교회(11월 13일)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종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생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명자대회(10월9일부터 50일간)기간동안 5대 기도제목 성취되도록
2. 교회학교 학생 1만명 이상, 100명 이상 선교사, 사랑의 집 건설케 하소서
3. 11월27일 현당식, 암송필사성경본헌, 선교사 파송, 장애인 전문대학·대안학교 설립이 은혜롭게 되도록
4. 대한민국의 경제성 회복과 북한 땅의 신앙 자유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교회오시는 길

